

GLOBAL DEFENSE NEWS

감시정찰 미 특수작전사령부, ISR 임무수행용 혁신기술 개발 추진

기 동 러시아, 장갑차 부메랑 및 쿠르가네츠-25 시험 실시

함 정 일 해상자위대, 해양무인체계 강화 추진

항 공 미 스페이스X사, 세계 최대 우주발사로켓 발사 성공

화 력 미 국방부, 신형 소총 및 탄약 개량 방안 검토 중

방호·유도무기 ① 터키, 독자 개발 히사르-A 방공미사일체계 시험발사 성공

방호·유도무기 ② 미 DARPA, 위험물질 노출여부를 탐지하는 ECHO 사업 예정

전력지원체계 미 해군, 신형 IFRV 작업복 공개

전재인용시 출처가 '국방기술품질원'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 방산정보팀은 <Global Defense News>, 「국방과학기술정보」誌로 전 세계 국방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◎인터넷망

<http://www.dtaq.re.kr/ko/doc/technical.jsp>

◎국방망

<http://www.dtaq.mnd.mil/ko/doc/technical.jsp>

미 특수작전사령부, ISR 임무수행용 혁신기술 개발 추진

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

감시정찰

기 동

함 정

항 공

화 력

방호·유도무기

전력지원체계

- 미국 특수작전사령부가 정보·감시·정찰(ISR) 임무 수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아이디어 개진을 요청하였음.
- 새로운 기술 중 하나는 사전 작성한 대상 목록과 개인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체계임.
 - 특수작전요원은 특정인에 대한 개선된 감시·정보를 제공하는 콤팩트하고 정확도 높은 장거리 안면인식 능력이 필요
 - 장치는 목록을 이동간 편집할 수 있고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, 통신 연결 시 업데이트 가능
- 다른 신기술로는 화학무기 공격과 화학무기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임.
- 마지막으로 GPS에 기반을 두지 않은 위치결정·항법·시간설정(PNT) 기술에 대한 관심도 표명되었음.
 - ※ PNT: Positioning, Navigation, and Timing
 - 종전 양자지원 감지·판독(QuASAR)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원자시계를 목표로 하며, 휴대형으로 제작 가능
 - ※ QuASAR: Quantum-Assisted Sensing and Readout
 - 미 DARPA는 50억년 동안 1초미만의 시간 오차가 발생하는 광학원자시계를 개발 하였으며, 이러한 시계는 GPS와 같은 기존 군용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임.



특수작전부대 ISR 임무 수행

러시아, 장갑차 부메랑 및 쿠르가네츠-25 시험 실시

- 8x8 차륜형 장갑차 부메랑(Bumerang)과 궤도형 보병전투장갑차(IFV) 쿠르가네츠(Kurganets)-25에 대한 예비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러시아 군 뉴스매체 인테르팍스-AVN이 1월 26일에 보도함.
- 부메랑 및 쿠르가네츠-25에 대한 개발 및 시험은 러시아가 최근 승인한 2018-27 국가무기사업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며, 엔진·변속기·현수장치·무기체계·센서·탄약·장갑 등 전체 부체계 개발 및 시험과 병행하여 진행함.
 - 부메랑은 예정대로 시험 중이고, 결함사항을 시정한 후 국가시험에 착수할 예정으로 K-17 IFV 및 K-16 병력수송장갑차(APC) 형태로 가용하며, 고객 요구에 따라 이 플랫폼에 기반을 둔 구난·지휘소·정찰·대전차 버전 등의 전체 계열 장갑차를 제작
 - 쿠르가네츠-25에 기반을 둔 장갑차는 2021년에 전면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, 플랫폼은 IFV(오브젝트 695), APC(오브젝트 693), 구난장갑차(ARV) 형상으로 가용하고 구난장갑차, 120mm 자주포 및 57mm 대공포 체계의 기본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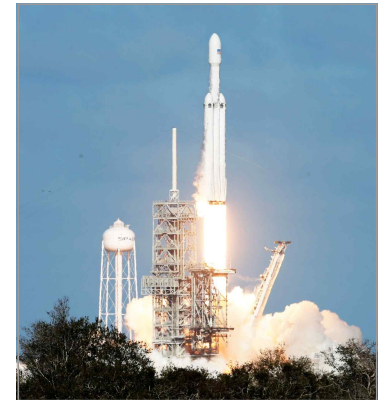
쿠르가네츠-25 BMP 보병전투장갑차

일 해상자위대, 해양무인체계 강화 추진

- **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양안보문제 증가와 인력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USV 및 UUV을 개발하고 있음.**
 - 2018년 아시아 방산엑스포·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자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USV 및 UUV 초기 목표는 대기뢰전용이며 2020년 최초운용능력(IOC)을 달성할 3,900톤급 Type 30 구축함(개발명 30DD)에 배치
 - Type 30 구축함은 히타치사에서 개발한 ZQS-4 가변심도음탐기(VDS) 등을 이용해 광범위한 대기뢰전에도 활용
- **Type 30 구축함에는 11m의 10톤급 고속단정(RHIB) 외에도 자국에서 개발한 OZZ-5 UUV 등을 탑재할 예정임.**
 - 이 UUV는 길이 4m, 폭 0.5m, 무게 900kg으로 2013~2016년 대규모 해상시험을 거쳐 2017년에 IOC를 완료하였고 이중영상 음탐기를 탑재하여 저주파로 해저 물체를 스캔 가능
 - 또한 탑재되는 USV에는 UUV용 통신중계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기능 안테나 및 대기뢰전용 소모성 소해체계(EMDS)를 갖출 예정
 - ※ EMDS: Expendable Mine Disposal Systems
 - 해자대는 대기뢰전용으로 운용수심 600m, 임무 지속시간 70시간의 하이드로사 REMUS 600 자율무인잠수정(AUV)과 운용수심 100m, 임무 지속시간 220시간의 REMUS 100도 운용

미 스페이스X사, 세계 최대 우주발사로켓 발사 성공

- 스페이스X사가 새롭게 개발한 초대형 우주발사로켓 ‘팰콘헤비(Falcon Heavy)’ 로켓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음.
 - 팰콘헤비는 2012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7년 지상시험을 완료하였으며, 원지점 7,000km의 저지구궤도(LEO)에 진입할 탑재체를 적재하고 발사 시험에 성공 ※ LEO: Low Earth Orbit
 - 이번시험의 탑재물은 ‘테슬라 로드스터’ 전기자동차이며, 태양계의 화성과 소행성 사이의 궤도로 진입하여 화성의 영향권 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
 - 발사 약 2분후 2개의 측면 부스터가 동시에 분리되어, 500ft 분리된 2개의 지상 착륙패드에 각각 수직 연착륙
 - 1단 중앙 코어로켓은 2단 로켓과 분리된 후 낙하하여, 해상의 무인 착륙 패드에 수직 연착륙
- 팰콘헤비는 전 세계가 운용중인 로켓 중 최대 규모로, 저지구궤도, GTO 및 화성행 탑재체를 발사할 수 있어 상용 및 군용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발사로켓임. ※ GTO: Geosynchronous Transfer Orbit
 - 1단에 멀리 1D 엔진이 9개씩 장착된 3개의 코어(중앙, 양측면)에서 555만 lbf의 추력
 - 지구궤도로는 63,800kg, GTO궤도 26,700kg, 화성 16,800kg, 목성 3,500kg의 탑재체 발사 가능
 - 코어엔진 3개는 지상 및 수상에 착륙하여 재사용



팰콘헤비 발사장면

미 국방부, 신형 소총 및 탄약 개량 방안 검토 중

○ 미국 국방부가 적대세력의 신형 방탄복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이 운용 중인 소총·탄약의 개량을 검토 중임.

- 러시아·중국·IS 등 적대세력에서 방호력이 강화된 신형 방탄복을 도입함에 따라 미 육군에 표준 지급되는 M4 카빈 소총과 5.56mm탄의 무용론이 대두
- 2017년 미 상원 청문회 시 '적은 첨단 방탄복을 사용하며, 이로 인해 5.56mm 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'고 거론
- 마크 밀리 육군총장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, 현재 운용 중인 소총과 탄약을 개량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검토 중이라 부언
 - ↳ 미 육군은 신형 탄약과 개선된 탄도학을 적용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, 적의 신형 방탄복을 관통하는 것으로 평가
- 신형탄환의 개발은 진행 중인 것으로 언급하였으나, 세부 계획은 미공개

○ 한편, 미 육군은 M249 경기관총을 대체하는 차세대 분대자동소총 사업도 속도를 낼 예정임.

- 중량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잦았던 M249 대체를 위해 사업 추진간 이동성·살상력 등 확보에 집중
- 점진적 개량 방식에서 탈피하여 요구되는 능력(중량, 신형 총탄 등)을 일거에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
 - ↳ 2025~2026년을 목표로 차세대 분대자동소총 배치 예정
- 신형 무기는 기존 탄약 대비 중량이 30% 가벼운 탄두내장형탄(CT탄)을 채택하여 전투 하중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측 ※ CT: Cased Telescoped



M249 경기관총

터키, 독자 개발 히사르-A 방공미사일체계 시험발사 성공

GLOBAL DEFENSE NEWS

지휘통제·통신

감시정찰

기 동

합 정

항 공

화 력

방호·유도무기①

전력지원체계

○ 터키 국방부가 아셀산사와 로켓산사가 개발하여 자국 내에서 제작한 차세대 히사르-A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음.

- 히사르 방공미사일체계는 2020년까지 터키군에 납품 예정

○ 히사르 미사일은 저고도 및 중고도 방공체계로 군사기지·항만시설·부대를 항공기·헬기·순항미사일·무인항공기와 같은 공중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었음.

- 로켓산사가 미사일을 개발하고 아셀산사는 레이더, 통제체계 그리고 미사일 통제 및 캐니스터 발사대를 탑재하는 전투차량을 개발

- 히사르 방공체계는 2가지 버전으로 개발

↳ 히사르-A: 최대 사거리 15km, 최대 고도 5,000m

↳ 히사르-O: 최대 사거리 25km, 최대 고도 15,000m

- 차량에 설치된 3D 레이더, 전자광학체계, 지휘통제 및 사격통제체계에 의해 완전 자율방식으로 운용



히사르-A 방공미사일체계

미 DARPA, 위험물질 노출여부를 탐지하는 ECHO 사업 예정

○ 미 국방고등연구기획국(DARPA)이 인체의 후성유전체 판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위협작용제에 노출되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휴대용 기기 제작을 위한 ECHO 사업에 대하여 2월 23일 업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.

※ ECHO: Epigenetic Characterization and Observation (후성유전체 특성 파악 및 관찰)

• 후성유전체(epigenome)란 DNA 염기서열 자체의 변화가 아닌 DNA 주변환경에 의해 발현된 유전체를 의미함.

- ECHO 기술은 채혈이나 면봉으로 구강 내 상피세포를 채취하여 후성유전체를 판독

○ ECHO 사업은 후성유전체를 판독하여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하는 특징을 식별하는 것임.

- 4년간 진행 예정인 ECHO 사업에서 위협작용제 노출에 의해 생성되는 후성유전체 특징을 식별하는 기술과 정확한 노출 종류 및 시기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의학·진단 분석 기술을 개발

- 또한 현장에서 30분 내에 후성유전체를 판독하는 휴대형 기기 개발도 필요

- ECHO 기술은 자체 병력을 위한 진단도구로도 사용 가능

↳ 전염병을 진단하고 위협작용제 노출 여부를 확인하여 늦기 전에 의료적 대응



유전체 분석 개념

미 해군, 신형 IFRV 작업복 공개

○ 미 해군이 최근 일련의 시험을 거쳐 최신형 상하일체형 작업복을 공개하였음.

- 이 신형 난연개선형(IFRV) 작업복은 기존 난연형(FRV) 작업복을 대체할 예정이며 함대 편제 의류 품목으로 도입

※ IFRV: Improved Flame Resistant Variant

※ FRV: Flame Resistant Variant

- 신형 IFRV 작업복은 기존 작업복에서 제기된 착용감과 내구성을 해결

○ 해군의 작업복 Type III 도입과 더불어 청색 내의가 단계적으로 착용이 중단되고 신형 IFRV와 같이 착용하는 청색 혹은 갈색 내의는 허용됨.

- 신형 IFRV 작업복은 난연성을 갖춘 세 가지 섬유 혼방으로 제작되어 아크 불꽃으로부터 병사를 보호하고 섬유 통기를 통해 습기 관리를 개선

- 신형 IFRV 작업복은 기존 FRV 작업복에 비해 내구성은 거의 2배

- IFRV 시험 중 의견 수렴을 통해 상하 분리형 FRV 작업복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어, 미 해군은 서로 다른 설계 특징을 갖춘 몇 가지 버전을 개발하여 2018년 봄에 시험할 예정



미 해군의 신형 난연개선형(IFRV) 작업복